



조계종 '불교환경의제21' 점검해 보니...

## 말로는 '필요' 현실은 '엇박자'

### 총무원 11월 지침발표 계획... 교구본사 1곳만 준비

'불교환경의제21'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인가?  
 사람과 단체, 재가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항목들을 분야별로 정리한 환경지침서인 불교환경의제21이 '구호'로만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의제실현의 실질적 주체인 교구본사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과 환경의 가치가 시대의 화두가 되면서 조계종이 2년 여간 준비해 온 불교환경의제21은 법장 스님이 총무원장에 취임한 이래 종책 과제로 선정·추진돼 왔다. 2003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불교환경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조계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단차원의 노력과는 달리 불교환경의제21 실천을 준비하는 교구본사는 1곳에 불과하고, 18곳의 교구본사들은 아직도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환경의제21을 마련하고 있는 총무원과 교구본사가 따로

놓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준비부족은 본지가 조계종의 전국 24개 교구본사를 대상으로 불교환경의제21의 △필요성 △실천방안 마련 △교구환경위원회 구성 등의 실천 준비사항을 점검한 결과 여실히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24개 교구본사 중 불교환경의제21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사찰은 마곡사 단 한 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기본적인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개의 교구본사는 불교환경의제21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교구환경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본사는 용주사·월정사·법주사·동화사·해인사·통도사 등 6곳에 불과하며, 이 중 일부 본사의 환경위원회는 사실상 '개집 휴업' 상태다.  
 이에 대해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스님은 "전 사부대중이 함께 나서서

불교환경의제21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각 본사차원에서 어떻게 의제를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교환경의제21을 적극적이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종단과 교구본사,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별사찰들이 의제내용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종단에서 제도적인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먼저 거론되는 것은 집행 가능한 의제를 구분해 제시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불교환경 기본의제' '친환경적 생활과 수행' '생태사찰 만들기' '수행환경 지키기' '사찰과 지역공동체'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정리된 의제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부터 제시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연구실장은 "현실적으로 모든 의제를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차별로 집행할 수

있는 의제를 간추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매년 친환경적 생태사찰을 선정해 포상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교육도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교구본사는 종단-사찰-지자체-환경단체-신도회를 포괄하는 환경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구환경위원회가 환경연안에 대처하는 등의 환경활동을 벌이며 불교환경의제21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사찰 역시 기본적인 실천 활동을 진행하면서 종단과 재가불자들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단이 제시하는 내용들을 재가불자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뒷받침도 필수적이다. 특히 관련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밀양대 환경공학과 이병인 교수는 "불교환경의제21이 명실상부한 '환경법구'가 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특히 교구본사와 개별사찰이 의제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 법전 스님 신계사 복원에 '금일봉'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사진)이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법전 스님은 예경실장을 통해 신계사 복원추진위원회에 금일봉을 전달하며 "금번 불사는 남북화합과 통일의 디딤돌을 놓는 남북공동의 대작불사"라고 말하고 "모든 종도들이 역사적인 통일불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서울 진관사 주지 진관 스님이 5천 만 원,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1천 만 원, 노래하는 포교사 '머루와 다래'가 5백만 원을 각각 신계사 복원추진위에 전달했다. 남동우 기자



### 社 告

#### 제10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 마감 12월 15일

명실공히 교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정으로 이끌어온 현대 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콕콕 담겨있던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5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및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hw@buddhapia.com (성명과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 ■사상내역

- ▷대상(유마상)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 종단협의회회장상 - 태고종 총무원장상
  - 현대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종원 이사장상 - 신수회장상

\*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톤) 열쇠를 각각 수여합니다.  
 \* 10-11월 두 달간 현대불교신문과 붓다뉴스를 통해 수필가 명단자 선정(에세이문학 발행인)의 '수기 쓰기 이렇게'를 연재해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각으로 컴퓨터 작동...“유식사상 입증”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식(識)일 뿐이다(三界唯心 萬法唯識)"는 유식(唯識)사상을 입증하는 과학적인 실험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USA투데이에는 10월 11일 미국의 한 전신마비 환자가 뇌에 전선을 연결해 생각만으로 컴퓨터의 커서를 움직여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환자는 100여개의 작은 감지기를 뇌에 심은 뒤 이것을 전선으로 외부의 컴퓨터와 연결했으며, 결국 이 환자는 생각만으로 커서를 움직여 '퐁(pong)'이라는 게임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지난 8일 미국플로리다학 및 재활협회 연례총회에서 발표된 이 연구결과는 매사추세츠주 폭스보로 소재 '사이버네틱스 뉴로테크놀로지 시스템즈(CNS)'에 의해 실시됐다. CNS 측은 25세의 남자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움직였고 텔레비전을 켜고 e-메일을 여는 한편 70%의 정확도로 컴퓨터 게임 '퐁'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일련의 뉴런(신경단위)으로 부터의 신호를 읽고, 신호를 행동으로 해석하기 위해 컴퓨터와 연산을 이용하는 기술의 초기단계임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우회중 서울대 교수(수의학)는 "눈, 귀, 코, 혀, 몸, 생각 등의 인식작용인 6(식)각(意識)의 힘으로 대상을 움직이는 것은 낮은 단계의 유식사상을 입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인지과학이 유식학을 집중 연구한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신회섭 한국과학기술원 학승기억현상 연구단장은 "뇌의 의식을 전기신호로 변환시켜 사물을 움직이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분야의 성과는 마음의 작용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 마음의 비밀이 벗겨질 날도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단청문양에 빠진 동심

100여명이 '현대불교' 창간 10주년기념 김윤오 창작단청문양전이 열리고 있는 경인미술관을 찾아 단청문양의 신기함에 흠뻑 빠졌다. 관련기사 4면 사진-고영배 기자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060-700-1080

**‘할’**

부처님의 49년 설법중 마지막 열반명에  
 “일체중생은 누구나 불성이 있다”

마상·분별·집착으로 증득하지 못했음뿐

그림 · 조태호

정광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간 · 암 · 환 · 자 · 돕 · 기

## 한마음선원 합창제

함께 울고웃는 화합의 한마당  
하늘과 땅을 울릴 선법의 화음

모든 이들이 마음의 도리를 알아  
 스스로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밝고 화목하게 자유인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 심장병 어린이 돕기 합창제에 이어  
 간암 환자를 돕기 위한 합창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2004.11.6 (토) 오후 3시  
 11.7 (일) 오후 3시  
 오후 7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문의

한마음선원 031)470-3173  
 www.hanmaum.org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후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전국비구니회,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현대불교신문, BBS, BTN  
 출연: 한마음선원 본원 어머니, 거사, 청년, 어린이 합창단, 해외지원 등 약 1,100명  
 특별출연: 스님 합창단  
 연주: 서울시 국악 관현악단

